

왕좌 앞에서 열리는 역사, 어린양 안에서 완성되는 노래

I. 서론

요한계시록 2–3장은 땅 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으로 교회사대의 실재를 진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일곱 봉인이 열리며,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심판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4–5장이 “갑자기” 하늘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 전환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심판을 “누가” “어떤 권위로” “어떤 목적을 향해” 진행하시는지, 그 심판의 근거(정당성)를 하늘의 법정에서 먼저 보여 주시는 문맥적 문(門)입니다.

4–5장을 놓치면 6장 이후를 “재앙의 나열”로 읽게 되지만, 4–5장을 붙들면 6장 이후가 왕좌의 주권과 어린양의 구속(救贖) 아래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회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II. 문맥 배경

1) 계시록 전체의 큰 뼈대(계 1:19의 문장 구조)

계 1:19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 덩어리를 쓰라고 하십니다.

- “네가 본 것들”
- “지금 있는 것들”
- “이후에 있을 것들”

이 문장 구조가 4:1의 “이 일 뒤에(After this)”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2–3장이 교회사대(“지금 있는 것들”)라면, 4장부터는 “이후에 있을 것들”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2) 무대 이동: 등잔대(교회) → 왕좌(하나님 통치)

1장에서는 “일곱 금등잔대(교회들)” 사이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 보입니다. 2–3장에서는 그 등잔대들(각 교회)을 직접 다루십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등잔대”가 아니라 “왕좌”가 전면에 서고, 왕좌에서부터 “번개, 천둥, 음성”이 나오며, 6장부터 실제 심판이 훌러나옵니다.

- 2–3장: 교회가 땅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 4–5장: 하늘에서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주권/합법성)
- 6장 이후: 열린 봉인에 따라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심판/회수)

3) 구약의 하늘 법정 배경

4–5장은 구약의 “왕좌 환상”들을 응축해 보여 줍니다.

- 사 6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왕좌 찬양
- 겔 1장: 네 생물(짐승), 눈, 날개 등 왕좌 주변 존재들
- 단 7장: “옛적부터 계신 분”과 “사람의 아들”이 나라를 받는 장면

요한계시록 4–5장은 이 구약의 왕좌-법정 이미지를 가져오되,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왕좌 환상은 “왕좌”를 보게 하지만, 요한계시록 5장은 “왕좌의 뜻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어린양의 피로 연결해 줍니다.

4) 왜 “봉인 심판 직전”에 4–5장을 주셨는가

- 심판의 출처를 확정합니다: 심판은 우연도, 인간도, 마귀도 아니라 왕좌에서 나옵니다.
 - 심판의 집행자를 확정합니다: 봉인을 여는 분은 두려운 천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입니다.
 - 심판의 목적을 확정합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피로 사신 분이 되찾아 통치하시는 회수의 과정입니다(구속사).
-

III. 4–5장의 각 구절별 의미 요약

A. 계 4장: 하늘의 왕좌

계 4:1

“이 일 뒤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나팔 소리같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 4:1)

- “이 일 뒤에”: 2–3장의 교회시대 묵음이 끝났음을 문맥적으로 선언합니다(계 1:19의 “이후에 있을 것들”로 진입).
- “하늘에 한 문”: 계시가 땅의 시야를 넘어 하늘의 관점에서 진행됨을 뜻합니다.
- “나팔 소리같이”: 이후 “들림(휴거)”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 “이리 올라오라”: 요한 개인에게는 환상 전개의 초대이지만, 동시에 교회시대 이후의 전개를 여는 상징적 모형으로도 읽혀 왔습니다(교회의 휴거의 모형).

계 4:2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계 4:2)

- “즉시”는 계시의 급전환(즉각성)입니다.
- “왕자”는 계 4–5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6장 이후의 봉인 심판을 읽는 동안, 독자는 반복해서 이 사실을 불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훈들려도 왕자는 훈들리지 않습니다.

계 4:3

“벽옥과 흥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계 4:3)

- **벽옥(jasper)**: 성경 문법에서 “빛나는 광휘/청정/영광”의 이미지로 작동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 **홍보석(sardine/sardius)**: “붉음”의 결을 가지고 있어 피/심판/왕권의 색채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 무지개 자체는 언약의 표식(창 9장)을 상기시키고,
 - “에메랄드”的 녹색 결은 왕좌의 거룩함이 곧바로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고, 언약적 신실함(긍휼의 지속) 안에서 역사한다는 방향을 잡아 줍니다.

요약하면: 왕좌의 거룩함 = 무서운 심판이면서도 언약에 근거한 신실함입니다.

계 4:4

“스물네 장로... 흰옷... 금왕관” (계 4:4)

- **스물네(24)**는 성경에서 “대표성/완결된 질서”를 자주 띍니다(예: 제사장 반차 24반열의 질서).
- **장로(elders)**는 통상 “성도 공동체의 대표”라는 결을 갖고,
흰옷과 왕관은 2-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어휘들과 강하게 접속됩니다.
- 그래서 KJB 진영에서는 이 장면을 “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왕-제사장적 신분과 상급의 표식을 지닌 채 앉아 있는 장면”으로 읽는 흐름이 강합니다(V에서 근거 정리).

계 4:5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계 4:5)

- **번개/천둥/음성**: 출애굽기 시내산(출 19장)의 신현(神顯)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즉, 6장 이후 심판은 “하늘이 분노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임재가 드러날 때 생기는 필연적 떨림입니다.
-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개의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완전성을 나타내는 계시록의 문법입니다(계 1:4도 같은 흐름).

계 4:6

“수정 같은 유리바다... 네 짐승... 눈이 가득” (계 4:6)

- **유리바다**: “투명/고요/분리”의 이미지로, 왕좌 앞의 절대적 거룩함(접근의 경계)을 드러냅니다.
- **눈이 가득**: 왕좌 주변은 무지(無知)가 아니라 “완전한 감찰/인식”的 영역임을 선언합니다.
즉, 6장 이후의 심판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잉 반응”이 아니라 완전한 암에서 나옵니다.

계 4:7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계 4:7)

- **네 얼굴은 창조 세계의 대표성을 띍니다(맹수/가축/인간/조류)**.
왕좌 예배가 “교회 취향”이나 “이스라엘 취향”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피조계 전체의 질서를 끌어안는 예배임을 보여 줍니다.
- 또한 오래전부터 “복음서의 네 초상” 등으로도 상징 해석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계 4:8

“여섯 날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오실”
(계 4:8)

- 세 번의 ‘거룩하다’는 이사야 6장의 왕좌 찬양과 같은 결입니다.
- “전에도/지금도/앞으로”는 계 1장에서 반복되던 하나님의 영원성 표식입니다.
이 찬양이 6장 직전에 자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먼저 “거룩”을 노래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거룩)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계 4:9–10 (요약)

- 네 짐승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
- 이 장면의 성경 문법은 분명합니다.
왕관은 ‘내가 쟁취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재료입니다.

계 4:11

“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 (계 4:11)

- 예배의 이유가 “내 기분”이 아니라 창조(창조주-피조물 관계)에 박혀 있습니다.
- “주를 기쁘게 하려고”는 현대 인본주의(인간 중심)와 정면 충돌합니다.
성경 문법상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자기 실현”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입니다.

B. 계 5장: 어린양과 일곱 봉인된 책

계 5:1

“오른손에 있는 책... 안과 뒷면... 일곱 봉인” (계 5:1)

- “책”은 고대의 “두루마리(roll)”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 **안과 뒷면:** 내용이 넘치도록 가득함, 즉 하나님 계획의 총만함.
- **일곱 봉인:** 완전한 봉인(완전한 권리/완전한 통제).
이 봉인을 여는 권한은 곧 “역사 집행권”입니다.

계 5:2–3

“누가 합당하냐?” “아무도... 퍼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계 5:2–3)

- 하늘 법정은 “능력”이 아니라 합당함(**worthiness**)을 묻습니다.
- 천사도, 사람도, 땅 아래의 어떤 권세도 이 책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은 6장 이후가 “천사들의 폭주”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유일한 권리 행사를 못 박습니다.

계 5:4

“내가 많이 울었더니” (계 5:4)

- 요한의 눈물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구속자가 없다면 역사는 봉인된 채로 남고, 죄와 죽음과 저주가 “영원한 정상”이 되어 버립니다.
- 그래서 “책을 열 수 있음/없음”은 단순 정보 공개가 아니라, 구속사의 진행 가능성입니다.

계 5:5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셨으므로” (계 5:5)

- 사자(獅子): 왕권, 정복, 승리.
- 다윗의 뿌리: 약속(언약)의 뿌리, 메시아 혈통의 근거.
- 핵심은 “이기셨으므로”입니다.

성경 문법에서 그리스도의 합당함은 “우리의 추천”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계 5:6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 일곱 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계 5:6)

-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어린양이 보입니다.
이것이 계 5장의 핵심 충격입니다.
하늘은 “힘센 사자”만을 숭배하지 않고, “죽임당한 어린양”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 뿔은 성경에서 힘/권세의 상징(완전수 일곱 → 완전한 권능).
- 눈은 감찰/전지(全知)의 상징(완전수 일곱 → 완전한 인식).
- 즉, 어린양은 무기력한 희생물이 아니라,
피 흘려 구속하신 방식으로 왕권을 얻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계 5:7

“오셔서...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계 5:7)

- 하늘의 모든 시선이 이 “취하심”에 모입니다.
이제 6장은 “심판이 시작”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린양이 역사를 여는 순간입니다.

계 5:8

“하프... 금병... 향... 성도들의 기도” (계 5:8)

- 하늘은 “기도”를 연기처럼 흘어지게 두지 않고 금병에 담아 “향”으로 취급합니다.
- 이 문장은 교회시대 성도들의 현실을 강하게 위로합니다.
땅에서는 약해 보이는 기도가, 하늘에서는 예배의 한복판에 놓입니다.

계 5:9–10

“새 노래...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 왕과 제사장... 땅에서 통치” (계 5:9–10)

- 새 노래: 구속의 새 시대를 선포합니다.
- “주의 피로... 구속”: 합당함의 근거가 “도덕적 위대함”이 아니라 대속(代贖)의 피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 왕과 제사장: 계 1:6의 선언(성도들의 신분)이 5장에서 다시 노래로 확인됩니다.
- 땅에서 통치: 구속은 “하늘로 탈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성도들이 그 통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계 5:11–12 (요약)

-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합류하고,
- “권능/부/지혜/힘/존귀/영광/찬송”의 일곱 겹 찬양이 터집니다.
하늘은 어린양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배합니다.

계 5:13–14

“모든 창조물...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아멘... 경배” (계 5:13–14)

- 예배가 “하늘만의 취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조계 전체가 인정해야 할 왕권의 선언임을 보여 줍니다.
-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지점에서 6장이 시작됩니다.
즉,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예배로 확인된 왕권의 집행입니다.

IV. 주제 및 대표구절 🎵

1) 주제

- 왕좌(주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계 4장).
- 어린양(구속): 역사는 피로 사신 분의 손에서 열립니다(계 5장).
- 그래서 6장 이후의 모든 격변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왕좌는 안전하고, 어린양은 합당하시며, 봉인은 반드시 열린다.”

2) 대표구절(흠정역)

- 계 4:1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 (계 4:1)
- 계 4:11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 (계 4:11)
- 계 5:5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기셨으므로...” (계 5:5)
- 계 5:9–10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 왕과 제사장... 땅에서 통치...” (계 5:9–10)
- 계 5:12–13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합당...” /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계 5:12–13)

V. 환란 전 교회의 휴거의 근거

여기서는 “4–5장이 교회 휴거를 직접 교리적으로 정의한다”기보다, 4–5장이 2–3장(교회사대) 이후, 6장(봉인 심판) 이전에 놓인 이유와 함께 환란 전(前) 휴거의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성경 문맥으로 정리합니다.

1) “이 일 뒤에... 이리 올라오라”(계 4:1)의 문맥적 기능

- 계 4:1은 2–3장의 “교회들” 메시지가 끝난 뒤에 “이후에 있을 것들”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문장입니다.
- “나팔 소리같이”라는 표식과 “올라오라”는 호출은, 신약 다른 곳의 들림(휴거) 표식(나팔/부름/공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언어입니다.
- 다만, 이 구절 하나만을 “휴거 교리의 단독 증거”로 삼기보다는, 다른 분명한 본문들(예: 살전 4장 등)로 교리를 세운 뒤, 계 4:1을 그 교리와 조화되는 모형적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교회(교회들)의 호칭이 4장 이후 한동안 전면에서 사라지는 흐름

- 2–3장은 “교회들”이 전면이지만,
- 6장 이후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등의 어휘가 전면화됩니다.
- 이 변화는 교회사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민족적·세계사적 심판 구도를 전면에 두시는 구간으로 넘어 갔음을 시사합니다.
- 교회 단어: 3:22에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사라졌다가 22:16에 다시 언급됨.

3) 스물네 장로의 위치와 상태(계 4:4)

- 장로들은 왕좌 둘레에 앉아 있고,
- 흰옷과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계 4:4).
- 2–3장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왕권적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상급의 표식을 가진 상태”로 이해하면, 6장의 심판(전 세계적 시험/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환란 전 휴거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4)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계 3:10)의 직접 약속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이라는 전 지구적 범위
- “너를 지켜 ... 면하게 하리라”라는 보호의 방식

이 약속은 4–5장이 “왜” 6장 직전에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교회에 대한 약속(2–3장)의 다음 장면이 “왕좌 앞(4–5장)”이라면, 그 자체가 보호의 방식이 ‘하늘 관점으로 들어올림’이라는 방향을 암시합니다.

5) “어린양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계 6장) 왕좌와 어린양을 먼저 보여 주심

6장에서 사람들은 “어린양의 진노”를 말하기 시작합니다(계 6:16–17).

그렇다면 4–5장은 “어린양의 진노”가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못 박습니다.

- 그 진노는 무분별한 분노가 아니라,
- 죽임당한 어린양의 합당함에서 나오는,
- 구속의 권리를 집행하는 진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진노 아래 남겨진다”기보다 “약속대로 지켜져 면하게 된다”는 전통적 환란 전 휴거 이해가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리하면: 4–5장은 휴거를 “정의”하기보다, 2–3장의 교회 약속 이후 곧바로 “하늘 왕좌”로 장면이 옮겨지는 방식으로, 환란 전 휴거 교리와 강하게 결을 맞춥니다.

VI. 4–5장에 계시된 그리스도



4–5장에서 그리스도는 “설교 소재”가 아니라, 하늘의 중심 그 자체로 계시됩니다.

1) 그리스도는 왕좌 예배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 4장: 왕좌에 앉으신 분의 거룩과 창조 권능이 찬양됩니다.
- 5장: 어린양이 책을 취하실 때, 하늘은 그분께 동일한 경배를 올립니다(계 5:13).
이는 어린양이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왕좌의 권위에 참여하시는 신적 합당함을 드러냅니다.

2) “사자”와 “어린양”의 결합(계 5:5–6)

- 사자 = 왕권/승리
 - 어린양 = 희생/대속
- 하늘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3) “일곱 뿔”과 “일곱 눈”(계 5:6)

- 뿔(권능)과 눈(전지)이 완전수(일곱)로 제시됩니다.
즉, 어린양은 “희생자”로 끝나지 않고, 희생으로 권세와 통치를 합법적으로 얻으신 분입니다.

4) “피로 구속”과 “왕-제사장”의 백성(계 5:9–10)

- 그리스도의 피는 “감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구속의 대가입니다.
- 그 피로 산 백성은 “구경꾼”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 그리고 그 목적은 “땅에서 통치”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론적으로 말하면, 5장은 “십자가”가 “왕국”을 여는 열쇠임을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VII. 결론



요한계시록 4–5장은 6장 이후의 심판을 “더 무섭게 만들기 위한 예고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 4장은 심판의 시대가 와도 **왕좌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5장은 심판의 집행자가 “파괴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양임**을 보여 줍니다.
- 그래서 6장 이후의 모든 격변은 결국
피로 사신 주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마음에 새기면, 교회시대 성도는 2–3장에서 책망과 경고를 들으며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4–5장에서 “왕좌와 어린양”을 보며 “내 시대의 끝에 누가 서 계신가”를 물들게 되며, 6장 이후의 두려운 장면들을 보면서도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양은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도, 심판도, 회복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